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구취



정 미 향

윤지병원 치과진료부 교정과장

서양의 동화를 보면 마음씨 착한 소녀가 선행의 보답으로 말을 할 때마다 그 입에서 보석과 아름다운 꽃들이 떨어지는 선물을 받은 반면에, 그를 시기하던 심술쟁이 소녀는 입을 열 때마다 뱀과 개구리같은 흉한 것들과 악취가 나오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 못된 소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 버려서 혼자서 외롭게 살게 되었고 착한 소녀는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어릴 적에는 그저 많은 동화 중의 하나로 넘겨버렸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서운 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스레 사회에서 격리되고 마는 그 벌이 너무 혹독하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소녀가 가여워질 정도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무와도 대화를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일테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정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에서도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구취라는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입냄새(구취) 때문에 곤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친밀한 사이일수록 두 사람간의 거리는 가까워지기 마련이므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입냄새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해 할 것 같아 자신 있게 대화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직장에서의 활동이나 사적인 교제 양쪽에서 제약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구취는 왜 생기는 것일까?

구취의 원인은 크게 전신적 원인과 구강 내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구강 내 원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우선 구강 내에서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치주질환(잇몸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적절한 보철물, 비위생적인 틀니, 구강 건조증, 인후감염, 구강암 등이 구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때로는 양파, 양배추 같은 황화합물을 함유한 식품, 마늘, 담배가 구취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치과치료와 올바른 칫솔

질에 의해 구강위생이 좋아진다면 많은 개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치열이 고르지 못하여 본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구강청결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교정치료를 함께 하여 치열을 바르게 배열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음식섭취나 흡연같은 생활습관의 문제라면 원인을 밝힌 후, 이를 조절하고 치과 진료실에서의 치료를 수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른 전신적 원인(간, 코, 소화기, 신장 등)으로 구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강 내에 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전신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검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중시되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마음과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구취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망설이거나 부담스러워 한 적은 없었는가?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젠 망설이지 말고 치과의 문을 두드려 보시라. 구취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좀 더 자신있고 활기차게 생활을 이끌어 간다면 당신에게서는 진정한 삶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다.

나도 한마디

최근 보험상품중에 응급처치비용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상품 발매 이후 119 소방대원들은 더 바빠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응급처치비용이라는 것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정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례 하나를 들어본다.

“구급 출동을 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할머니 한분이 아이를 업고 계시다 급하다며 구급차를 타셨다. 사고 개요를 물으니 아이가 음료수를 마시다 캔 두껍의 알루미늄부분을 삼켰다고 하는데, 아이는 전혀 통증이 없고 호흡도 원활한 상태였다. 병원에 도착하여 아이를 간호사에게 인계하고 환자의 구급일지를 간호사에게 주며 사인을 요청하자 환자의 이름을 확인한 간호사가 이름이 틀리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급한 나머지 진짜 환자인 형과 환자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기다리다 택시를 타고 먼저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였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소방서에 신고를 한 것은 환자와 보호자가 이미 병원으로 출발한 다음이었고, 결국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고 구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동생을 실제 환자인 형으로 꾸민 거저말이었다”

생명을 걸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맥빠지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